컴퓨터 관련 실용서·과학기술도서 출판 약진

출판사별 출간종수 및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종수로 본 국내 출판
박영사·경인문화사·형설출판사 납본 실적 1~3위
최근 3년간은 영진닷컴·박영사·크라운출판사 순
출판평론가 박몽구 씨 〈문화 변동과 한국출판의 위상 변화 연구〉서 밝혀

2003년 12월 현재 국내 등록 출판사 중 92.7퍼센트가 책을 내지 않은 무실적 출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가장 많이 한 출판사 중 1~3위는 박영사, 경인문화사, 형설출판사가 각기 차지했다.

지난달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문화학회(회장 부길만) 세미나에서 박몽구 경희대 강사가 발표한 논문 〈문화 변동과 한국출판의 위상 변화 연구〉(출판문화학회보 《출판잡지연구》 제12권 제1호 통권 제12호, 2004)에 따르면 문광부에 등록한 2만 782개 출판사 중 무려 1만9,258개사가 2003년 중 단 1권의 책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행하는 〈출판연감 2004〉를 토대로 한 논문에 의하면 201종 이상 낸 출판사는 24개사, 151~200종을 낸 출판사는 11개사, 101~150종을 낸 출판사는 24개사에 불과했다. 또 5종 이하를 펴낸 출판사도 무려 679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출판계는 시장 규모 3조 원으로 세계 8위 규모의 시장을 가진 출판대국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신간 부수만도 연 1억 부를 돌파한 지 오래지만,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팽배와 함께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특히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진출한 랜덤하우스중앙은 출판의 국제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의 반영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만큼 토착 출판인들의 각성과 출판의 본령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1종 이상 펴낸 출판사 24개… 스테디셀러 출판사 상위 랭크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신간서적 납본 출판사 실적 자료에 근거해 스테디셀러 출판에 매진해 온 출판사들의 면면을 분석했다. 특히 납본 실적을 반영한 자료는 일반인의 눈에는 쉽게 띄지 않는 학술서적이나 귀중한 자료 출판 등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출판행위의 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조사 결과 드러난 도서발행자별 납본 건수를 보면 박영사(4,663종), 경인문화사(4,139종), 형설출판사(3,676종)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출판사는 교재와 국학 자료 등 비문학 전문출판사들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문예·문학 분야 서적 출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유명출판사들이 상위권에 랭크되지 못한 점은 '반짝 유행'의 성격이 짙은 베스트셀러보다 스테디셀러를 꾸준히 펴낸 출판사들의 생명이 길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으로 스테디셀러를 중심으로 출판 본래의 사명에 충실해 온 출판사들이 한국출판의 맥을 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런 결과만으로 출판시장 판도를 분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7,80년대 사회과학출판으로 이름을 날린 한 출판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출판산업의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납본을 기준으로 출판현황을 살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납본 실적만 가지고 그 출판사를 평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도 자비출판을 대행해주는 출판사가 납본통계 상위에 오르는 등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통계는 출판의 분야마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하루빨리 출판계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출판통계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정독자, 출판사 지속 성장의 '일등공신'

이번 조사는 또 최근 3년간의 출판사별 납본 건수를 따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영진닷컴(1,317), 박영사(749), 크라운출판사(659), 박문각(643), 법문사(609), 교학사(549), 성안당(528), 정보문화사(518), 학지사(473), 한울(463) 등이 1~10위를 기록했다. 문예물이나 인문사회과학서 전문 출판사들보다는 대학교재나 실용서 및 과학기술 도서 전문출판사들이 상위를 차지한 셈이다. 그 중 박영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총납본

도서 종수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최근 4년간 납본종수에서도 2위를 차지해 주목받을 만했다.

또 영진닷컴, 크라운출판사, 성안당, 정보문화사 등의 약진은 이들이 주로 컴퓨터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한 실용서 출판에 매진해 왔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실용 위주의 지식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변동을 말해 준다. 특히 대학교재와 사회과학서 전문 출판사인 한울, 방송통신대 전문 교재 출판사인 은하출판사의 도약은 고정독자가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한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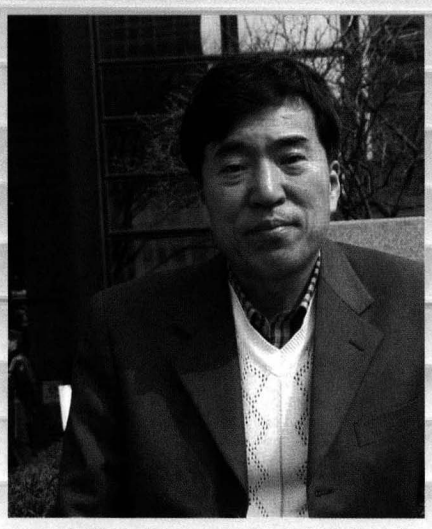
박씨는 "출판은 국가 지식 정보의 보고이자 견인차로서 원소스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 즉 모든 문화 콘텐츠의 원천"이라며 "출판이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수준과 양을 확보할 때 한 나라의 미래는 활짝 열릴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한 나라의 명운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취재_ 신동섭 기자

mini interview

박몽구 씨 (출판평론가)

"잘 되는 출판사일수록 해야 할 일이 있다"



◉ 무실적출판사가 92.7퍼센트까지 된다는 것은 출판 양극화의 고착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출판사 영세성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메이저 출판사가 자금력과 그로 인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소규모 출판사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다. 결국 인문사회서적 시장이 좁아지고 어중간한 실용서, 즉 아류출판이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거대자본 출판사들이 생기면서 출판시장도 브랜드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 출판사는 신문기사에 의존하던 홍보마케팅을 탈피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홍보마케팅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장악력이 높아진 것이다. 독자들도 브랜드 명에 익숙해지면서 책을 고를 때 브랜드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 무실적 출판사는 우리 출판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무실적 출판사가 늘어난 첫 번째 이유는 7, 80년대 의미 있는 책을 냈던 출판사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들 출판사는 현재 개점 휴업한 상태다. 또한 출판시장구조도 무실적출판사를 양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어떤 책이든 내기만 하면 일정부수 이상 팔려나갔지만 이제 기본이라는 것이 없다. 안 팔리면 서점에서 2, 3일 만에 반품이 들어온다.

결국 과거와 같이 베스트셀러나 기본 판매부수만 믿고 출판을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시대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부터 시작해 출간계획부터 자본계획까지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 그렇다면 발행종수별 출판사 비율은 어떠한 것이 이상적인가?

개별 출판사 출간종수의 많고 적음이 한국출판문화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출판사들이 내고 있는 출간 분야의 고른 분포다. 우리나라 출판문화에는 쏠림현상이 있다. 어린이책이 돈이 된다 싶으면 어린이책으로 몰리고, 실용서가 또 된다 싶으면 실용서로 몰린다. 문제는 한쪽으로 쏠림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나와 주어야 할 책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너도 나도 자크 라캉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라캉 전집은 번역되어 있지도 않다.

◉ 작년부터는 출판사 등록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 신고제가 무실적출판사 양산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출판당국은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무실적출판사의 양산에는 출판자유화의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들 출판사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출판사들에게 왜 책을 안 내냐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출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령 학술원과 문광부 등에서 우수학술도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대학 출신 교수의 책이 눈에 띄게 선정되는 등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양서를 출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당연히 의욕이 떨어진다. 정부로서는 지원예산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발행자별 납본건수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출판사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신문에 기사화되는 출판사는 제한되어 있다. 물론 그들이 좋은 책을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출판사 책의 가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언론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독자들은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출판사들이 전문분야의 책을 꾸준히 냄으로써 일부 유명 출판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출판본령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일부 유명 출판사들이 고쳐야 할 것으로 지적할 만한 사항은?

모출판사에서 나온 한 시리즈는 헌책방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도 출판사에서 절판시켰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출판이 너무 시장논리에만 경도되면 우리 문화의 발전은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다. 잘되는 출판사일수록 자신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역할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문화창달과 후세교육'이라는 출판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다. 번 돈으로 이윤은 남지 않더라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생산하고, 한번 시장에 나온 책은 가능한 한 절판시키지 않는 것이다.

〈섭〉